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고고학·역사학·미술사학·문화재학계 공동 성명서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12시

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제4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장소)

정부는 문화재의 보고이자 고대~중세 도시유적지인 하남 교산지구의 제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문화재 조사·보존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고고학·역사학·미술사학·문화재학계는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로 가득 찬 하남 교산지구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데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 문화재 조사·보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하남 교산 지구는 일찍이 백제의 하남위례성으로 비정되어 왔으며, 553년 신라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 이곳을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행정·군사적인 중심지인 신주를 설치하였던 곳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와 한주로 이어지며, 27개군, 46개현이 포함된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지였다. 그 후 고려~조선시대에는 광주·광주목·광주군의 행정 치소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역사를 품은 교산 지구는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었던 곳으로, 지역 전체에 걸쳐 유적·유물이 드러나거나 매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특히 현존하는 철불 가운데 최대 규모인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이 나온 천왕사지를 비롯하여, 오층석탑(보물 제12호)과 삼층석탑(보물 제13호)이 있는 동사지(사적 제352호), 교산동의 마애약사여래좌상(보물 제981호),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광주향교(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 상사창동 연자방아(경기도문화재자료 제82호) 등 중요한 문화재인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들이 밀집되어 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이곳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들이다.

현재까지 교산 지구 내에서는 6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토성(읍성),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대규모 절터와 많은 기와건물터, 불상 등의 중요 물품 제작 공방시설, 대규모 관영 창고시설, 가옥터, 우물 등이 전 지역에 걸쳐 확인되는 등 거대한 중세 도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 신주의 주치였던 이성산성(사적 제422호) 주민들이 살았던 대규모 신라 취락이 이곳 교산 지구 일대에서 넓게 확인되고, 인접한 감일지구 백제고분군과 관련되는 백제 취락지도 교산 지구 평지 일대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문화유산들은 모두 그 역사적·문화재적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하에 그대로 복토하여 원형 보존되어 있다.

○ 이처럼 중요하고 많은 문화재들은 교산 지구 전체 지역이 고대~중세의 거대한 도시유적지로서 각 시대별 역사·문화적 경관을 고스란히 증언해 주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할만한 문화재의 보고임이 자명하다.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 춘천 중도 레고랜드, 청주 테크노폴리스, 화성 태안3지구 등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을 벌인 결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대규모로 파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자산을 영원히 파괴해 버리는 치명적 과오를 범하였다.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형의 국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 역시 이러한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문화재 조사·보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분별한 졸속개발로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문화재 파괴의 역사적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교산 지구의 중요한 문화자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문화재 관련 학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남 교산 지구 제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산 지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방식의 문화재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대규모 국책 개발 사업의 추진시에 반드시 문화재 보존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추진하라.

2019. 11. 1

한국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한국상고사학회, 영남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기와학회, 한국성곽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백산학회, 백제학회, 신라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문화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하남 교산지구 주변 주요 유적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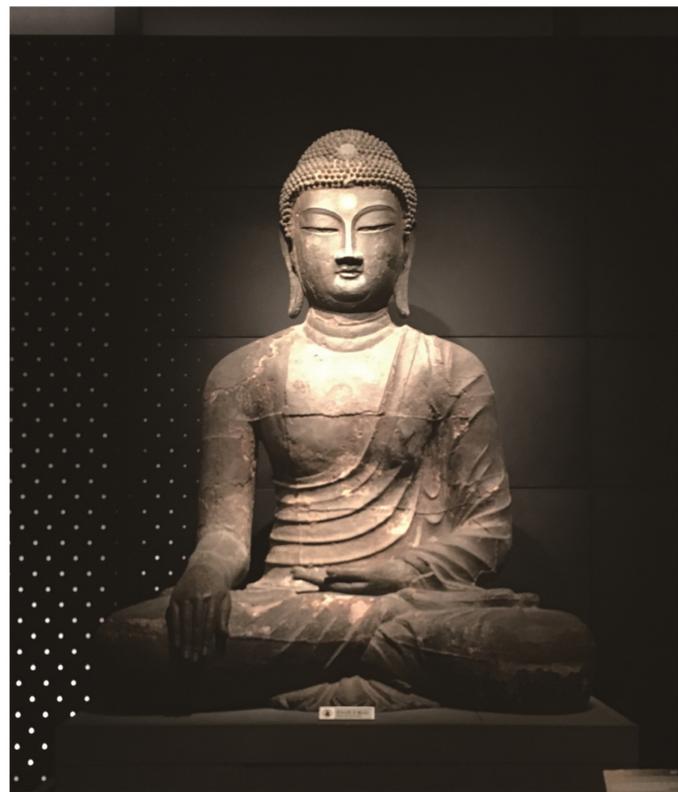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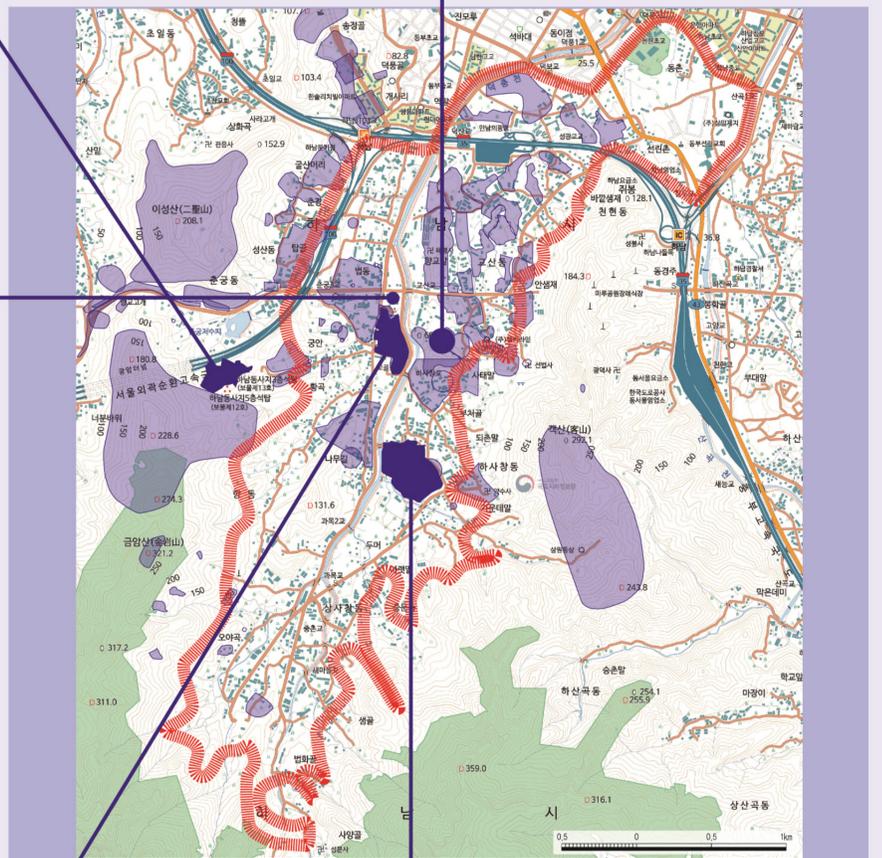


동사지 오층석탑 · 삼층석탑
(보물 제 12 · 13 호)

하남 교산동 건물지 전경



광주향교 및 주변 경관광장 전경



하남 하사창동 출토 철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제 332 호 - 높이 2.88m, 무게 6.2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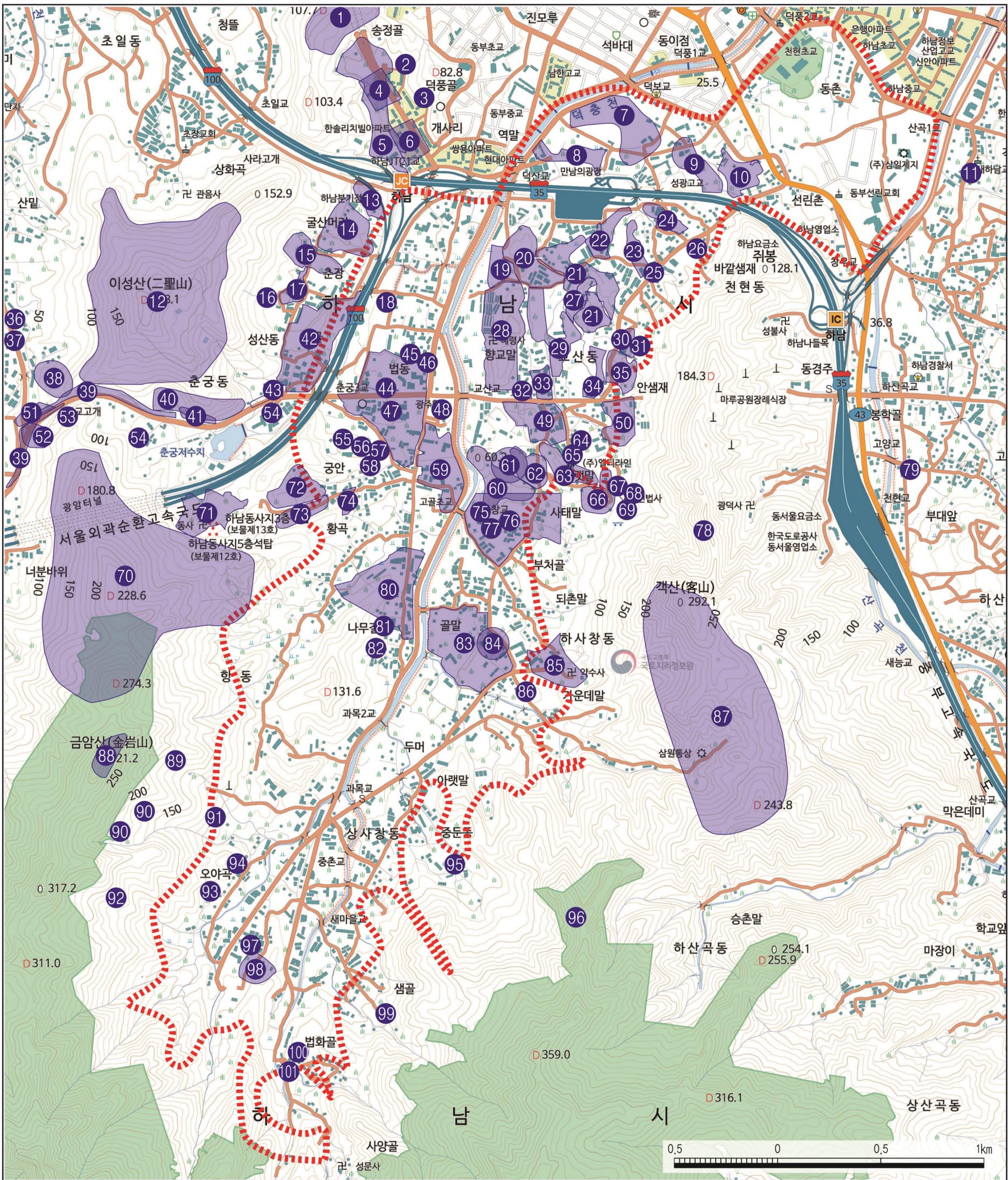


하남 하사창동 유적



천왕사지 발굴조사지역 전경

하남교산지구 및 주변유적 분포도



- 1·2. 하남 덕풍골 유적 3·4. 유물산포지2~4 5. 덕풍동 유물산포지3 6. 유물산포지4 7. 신장동 유물산포지 8. 덕풍1동 유물산포지2
 9. 천현동 유물산포지3 10. 천현동 유물산포지4 11. 한강수계 하수관거 지표조사 12. 이성산성 13~15. 춘궁동 유물산포지 3,4,9
 16. 춘궁동 유물산포지3 17. 춘궁동 유물산포지(신규) 18. 하남 춘궁동 하수관거 시설부지 내 유적 19. 교산동 유물산포지3 20. 교산동 일명사지
 21. 교산동 유물산포지4 22. 덕풍1동 유물산포지1 23. 천왕동 유물산포지1 24. 천현동 유물산포지2 25·26. 유물산포지2,3
 27. 춘궁동 토성추정지2 28. 춘궁동 토성추정지1 29·30. 교산동 유물산포지1,6 31. 유물산포지1 32. 교산동 유물산포지(신규)
 33·34. 교산동 유물산포지2,1 35. 교산동 유물산포지1(세종대) 36. 광암동 고인돌 37. 광암동 지석묘 38. 광암동 유물산포지
 39. 하남 덕풍-감북간 도로 3·4차구간 내 유적 40~42. 춘궁동 유물산포지5,2,10 43. 춘궁동 271-11번지 내 유적 44. 춘궁동 유물산포지6
 45. 춘궁동 242-6번지 내 유적 46. 춘궁동 243번지 내 유적 47. 춘궁동 365-1번지 내 유적 48. 광주향교 49·50. 교산동 유물산포지3,7
 51. 광암동 유물산포지 52. 광암동 고분군 53. 광암동사지 54. 춘궁동 303-14번지 내 유적 55. 춘궁동 349-3번지 내 유적
 56. 춘궁동 유물산포지 57. 춘궁동 유물산포지7 58. 춘궁동 393-3번지 내 유적 59. 하남 하사창동 유적 60. 춘궁동 토성추정지
 61. 하남 교산동 건물지 62. 하사창동 유물산포지 63. 교산동 토루추정지 64. 하남 소규모 건축부지 내 유적 65·66. 교산동 유물산포지9,8
 67. 선법사 68. 교산동사지 69.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70. 금암산고분군 1지구 71. 하남춘궁동동사지·석탑
 72·73. 춘궁동 유물산포지1,2 74. 춘궁동 유물산포지2 75. 하사창동 유물산포지4 76. 하사창동 316-1번지 내 유적
 77. 하사창동 320번지 내 유적 78. 객산만루지2 79. 양곡단오제 80. 향동 유물산포지 81. 향동 137-12번지 내 유적 82. 향동 134-4번지 내 유적
 83. 천왕사지 84. 하사창동 341-4번지 내 유적 85. 하사창동 유물산포지3 86. 석조대좌 87. 객산고분군 1지구 88. 금암산 일명사지1
 89. 자화사지 90. 약정사지 91. 약정사지 입구 건물지 92. 신복선사지 93. 봉수사지 94. 향동 확돌 95. 상사창동 석물1 96. 마금태미
 97. 향동 367-1,367-3,368번지 내 유적 98. 향동 기와가마터 99·100. 상사창동 일명사지, 연자방아 101. 삼백의총 기념비